

전국 수산물 60% 생산 전남에 수산 관련기관 ‘전무’

해수부 산하기관 서울·부산 86.7% 집중
어민들 “절박한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
문금주 ‘호남패싱’ 비판 “수협, 전남으로”

대한민국 ‘수산 1번지’로 불리며 전국 수산물의 60%를 생산하는 전남도가 정작 해양수산부 산하 및 유관 공공기관 배치에서는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어민을 직접 지원하고 대표해야 할 수협 중앙회,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핵심 기관들이 모두 ‘바다와 무관한’ 서울에 본사를 둔 반면, 전남에 위치한 관련 기관은 ‘여수광양항만공사’ 한 곳 뿐이어서 심각한 불균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7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 및 유관기관 전국 분포 현황’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수도권과 부산에 극도로 편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부산 6곳 ▲서울 5곳 ▲인천·세종 각 2곳으로 수도권과 부산에만 15개 기관 중 13곳(86.7%)이 몰려 있다. 반면, 울산·충남·경북·전남에는 각 1곳의 기관만 존재했다.

문제는 기관의 성격이다. 전남에 본사를 둔 유일한 기관은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이는 이름 그대로 항만 물류와 운영을 담당하는 곳이다. 수산



강풍에 기운 ‘뚝’ 바람이 강하게 불며 쌀쌀한 날씨를 보인 27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직장인들이 두꺼운 옷차림에 따뜻한 커피를 든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물 생산, 어장 관리, 어민 지원 등 전남의 핵심 산업인 ‘수산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사실상 수산업 중심지인 전남에는 수산 관련 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셈이다.

이와 달리 어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수협중앙회(서울 송파구), 해양환경 보전 사업을 총괄

하는 해양환경공단(서울 송파구), 어촌·어항 개발을 지원하는 한국어촌어항공단(서울 금천구) 등 어민들의 삶과 직결된 핵심 기관들은 모두 서울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기관 배치는 전남의 압도적인 수산업 비중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2024년 기준 전국 수산물 생산량 313만t 중 전남은 186만t으로 전국의 59.4%를 차지했다. 또한 K-푸드 열풍의 중심인 김(K-GIM) 생산에서도 전남은 독보적 1위다. 2025년 1-8월 기준 전국 김 수출액 79억9천443만달러 중 전남 지역 수출액은 3억316만달러(37.8%)에 달했다.

전남 어민들 사이에서는 “정책은 서울에서 만들어지고 어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지 오래다.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 황폐화, 인력난, 유가 급등 등 현장의 시급한 문제들이 서울에 위치한 기관들의 정책 결정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금주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호남 패싱’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문 의원은 “과거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있을 때마다 해운·물류 중심 기관들은 ‘해양수도’를 표방한 부산으로 대거 이전했다”며 “하지만 정작 수산과 어촌의 중심지인 전남은 번번이 배제돼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어촌과 어민을 위한 공공기관이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어민의 삶과 숨결이 있는 현장, 대한민국 수산업 1번지인 전남으로 본사를 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문 의원은 수협중앙회의 전남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수협중앙회는 전국 어민의 터전인 전남으로의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수협중앙회의 본사를 법적으로 이전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공공기관 재배치 논의에 불을 지필 전망이다. /김진수 기자

‘AI컴퓨팅센터’ 성난 광주 민심 뭉로 달랠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姜시장 면담
대책 제시 없이 건의만 청취 후 돌아가
姜 “컴퓨팅자원 집적 구체적 제안 전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무산 이후 지역 민심을 살피기 위해 광주를 찾았으나 구체적인 대책이나 메시지 없이 의견 청취 수준에 그쳤다. ▶관련기사 3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김 실장과 비공개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에게) 컴퓨팅 자원이 광주에 집적돼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국가AI컴퓨팅센터가 삼성SDS와 함께 해남으로 가더라도 이와 별개로 광주가 AI 3강으로 가기 위해서는 컴퓨팅자원 집적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우리가 애초 요구했던 것은 정부가 책임 있게 컴퓨팅자원 집적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이날 정책실장에게 광주의 구체적인 제안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실 측은) 이 상황의 엄중함과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다. 그 점은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강 시장은 “다만 정책실장이 광

주로 올 때는 시민의 허탈함을 최소화한 달래줄 수 있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준비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나, 오늘은 오히려 저의 의견을 많이 듣고 갔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오늘 (대통령실 측의) 특별한 메시지가 없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저의 제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며 “즉각 답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 시장은 “(김 실장이) 광주까지 온 김에 균형형 이전 문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일부 나눴다”며 “다만 이날 논의의 99%는 국가AI컴퓨팅센터와 컴퓨팅자원 집적 문제에 집중됐다”고 소개했다. ▶2면에 계속 /변은진 기자

코스피 4,000 시대

코스피가 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하면서 한국 증시의 새 역사를 썼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01.24p(2.57%) 오른 4042.83에 장을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천494억원, 2천341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개인은 7천962억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관련기사 12면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19.62p(2.22%) 오른 902.70에 거래를 마치고 지난해 4월1일 이후 약 1년7개월 만에 종가 기준 900선을 회복했다.

외국인은 이날 들어서만 5조원 넘게 국내 주식을 끌어들이며 ‘바이 코리아(Buy Korea)’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반면, 개인은 ‘나 홀로’ 8조5



79억원을 순매도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들어 코스피가 141% 급등하며 27일 사상 처음으로 사천피를 달성하게 한 주역이자 승자는 외국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사는 ‘바이 코리아’에 나선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반도체 대형주가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임재만 기자



www.jindoarirangmall.com



우리가족
안심먹거리

Fresh food
신선한식품

진도 아리랑몰

진도아리랑몰

을 검색하세요